



金井議政

제2016-8호

2016년 8월 1일(월)

의회사무국 ☎ 519-5501~5
http://council.geumjeong.go.kr/

열린의정 소통의정

금정구의회 제244회 임시회 개최

- 기간 : 2016.7.14.~ 7.20. ▶ 7일간
- 장소 : 의회 3층 본회의장 및 각 상임위원회회의실
- 참석 : 의원전원
- 안건
 - ▶ 2016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 ▶ 일반안건



연번	의안명	제출일자	의결일자	의결내용
1	부산광역시 금정구 국내외 도시 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오회주의원 대표발의)	16.7.1.		심사보류
2	부산광역시 금정구 행정운영 동의 설치 및 동장 정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4.	16.7.20.	원안가결
3	2016년도 수시분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	16.7.4.	16.7.20.	원안가결
4	부산광역시 금정구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7.4.	16.7.20.	원안가결

의정 일지

일시	내용	비고
7/4(월) 10:0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7/5(화) 09:30	·7월 의장단 회의	의원
7/5(화) 10:00	·7월 의원 정례간담회	의원
7/5(화) 11:00	·새마을부녀회 어르신 삼계탕 대접행사	의원

일시	내용	비고
7/5(화) 14:00	·후반기 의장단 기관 방문	의원
7/7(목) 11:00	·의회운영위원회	의원
7/11(월) 15:30	·변세길 신임 세무서장 접견	의장
7/12(화) 09:30	·세계시민교육 청년 리더십 워크숍 개최식	의원
7/14(목) 11:00	·제244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원
7/14(목) 14:00	·산자야 바티야 UN ISDR 동북아사무소장 초청 강연	의원
7/15(금) 10:00	·남광종합사회복지관 사랑의 삼계탕 나눔 행사 및 별관개관식	의원
7/15(금) 10:00	·각 상임위원회 안건 검토 및 현장방문	의원
7/15(금) 14:00	·CJ헬로비전 인터뷰	의장
7/18(월) 10:00	·각 상임위원회 안건 검토 및 심사	의원
7/19(화) 10:00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및 현장방문	의원
7/20(수) 11:00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원
7/25(월) 10:30	·의회사무국 간부회의	의장
7/27(수) 10:00	·부산시 건설본부 수민분구 하수관로 정비사업 사업설명회	의원
7/30(토) 14:20	·금정구 강진군 민주평통 합동정기 회의	의장
7/30(토) 19:00	·자매도시 강진군 제44회 청자축제 개막식	의장

주요 의정 활동

6월 의원정례간담회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7월 5일 의회 2층 소회의실에서 7대 후반기 원구성 후 첫 의원정례 간담회를 열고, 7월 주요 의사일정 및 주요행사를 논의하였다. 그리고 자체토의를 통해 의원·직원 워크숍 개최 및 의회마크의 한글화 변경에 대한 논의는 의회 운영위원회에 회부하기로 하고 실효성이 없는 의정 모니터 요원 운영은 폐지하기로 논의를 하였다.



■ 어르신 삼계탕 나누기 자원봉사활동 참여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7월 5일 동별 어르신 500여명을 대상으로 새마을부녀회에서 주최하는 복날 어르신 삼계탕 나누기 행사에 참여하였다. 이날 전의원들은 팔을 걷어부치고 어르신들의 식판을 나르고 부모님께 식사를 드리듯 공손히 음식을 배식하였다. 식사가 끝난 빈그릇을 치우는 등 지역 어르신을 위한 작은 봉사를 실천하면서 큰 보람을 느꼈다.



■ 제244회 임시회 개회 현장방문

▷ 금정구의회(의장 홍완표)는 지난 7월 14일부터 7월 20일까지 7일간 244회 임시회를 열고, 기획총무위원회는 섯골문화예술촌, 서동예술창작공간, 서동미로시장을 방문하여 금정구의 문화예술인에 대한 지원과 운영실태, 운영성과를 알아보고 재래시장 살리기의 일환인 서동미로시장의 운영성과 및 현실태를 파악하였다.

주민도시위원회에서는 자활사업의 하나로 지역 내 수급자 및 저소득층 대상으로 정부 양곡을 배송하는 드림택배서비스 현장과 샌드위치와 음료를 판매하는 로바니아 사업 현장을 방문하고 서1동 희망오차마을을 커뮤니티센터내에 있는 서1동 희망오차 마을공동체 및 마을지기 사무소 현장을 찾아 도시재생 추진의 향후 대책을 논의하였다.



(기획총무위원회 현장방문)



(주민도시위원회 현장방문)

■ 7대 후반기 의장단 및 상임위원장 당선 소감 꿈과 희망을 주는 금정구의회



의 장 홍완표

사랑하는 금정구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제7대 전반기 금정구의회에 보내주신 아낌없는 성원과 관심에 감사드립니다. 7대 후반기 개원을 맞아 부족한 제가 다시 한번 의장직을 수행하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며, 무거운 책임감을 함께 느끼게 됩니다. 우리 금정구의회는 언제나 구민들과 소통하며 현장에서 답을 찾는 의정활동으로 행복한 금정 만들기에 매진해 왔습니다. 후반기에도 잘 한 것은 더욱 잘 하고 고쳐야 할 점은 깊은 반성으로 개선해 나감으로써 구민에게 사랑 받고 감동을 줄 수 있는 의회를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구민 여러분의 아낌없는 성원을 당부드리며, 꿈과 희망을 주는 의정활동으로 보답해 드릴 것을 약속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금정구예산 3000억,
사람에게 먼저 쓰겠습니다!



부의장 박인영

경기가 어렵습니다. ‘점포세’라는 종이가 나붙은 가게들, 불이 꺼진 간판들을 부쩍 자주 만나게 됩니다. 작년 이맘때만 해도 만원짜리 통닭이라도 놓고 이런 저런 이야기들이 흘러넘치던 가게는 이제는 문을 굳게 닫았습니다. 이곳에서 통닭을 팔아 아이 학원을 보내고, 늙은 부모님을 모시던 사람들은 어떻게 살고 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무겁습니다.

금정구의 예산은 3000억이 훌쩍 넘었습니다. 결코 적지 않은 이 돈이, 하루하루 더 고단해지는 금정구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응원하는 데에 쓰이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7대 후반기 의회의 합리적 운영을 약속드리며



의회운영위원장 박정운

의원들 개개인은 독립적 기관으로 다양한 생각과 의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다양함이 상충되지 않고 원활하게 조율되어 의회가 합리적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조력하는 것이 운영위원장으로서의 가장 큰 역할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금정구의회는 집행부에 대한 견제, 업무의 협력, 정책 대안 제시 등 최선의 노력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금정구의 발전, 구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형태의 활동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해 나갈 것입니다.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개선해야 할 것은 개선하고 발전이 필요한 것은 진일보 될 수 있도록 협의와 상생의 의회를 만들어 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금정, 미래에 투자하고, 세상을 품다.



기획총무위원장 정종민

개청 30주년을 앞둔 금정구에게 앞으로 2년은 새로운 30년의 희망 씨앗을 뿌려야하는 중요한 시간입니다. 봄에 씨를 뿌린 자가 가을에 수확하는 것이 진정성의 원칙이라고 할 때, 미래세대에 투자하지 않고 미래의 희망을 기대하는 것은 염치없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금정의 미래 세대인 어린이, 청소년, 청년들의 꿈을 키워주고 지켜내어, 그들이 금정의 이름으로 세상을 품을 수 있는 기회와 환경을 만들어내겠습니다. 미래에 투자하고, 세상을 품을 때 금정은 매력적인 도시가 될 것입니다.

구민의 눈높이에서, 구민과 함께하는 의정 활동을 다짐하며



주민도시위원장 김경운

여러분! 반갑습니다.

제7대 후반기 주민도시위원장직을 맡게 된 김경운 의원입니다.

먼저, 부족한 저에게 주민도시위원장이라는 중책을 맡겨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금정 구민 여러분!

우리 위원회는 환경개선과 도로정비 등 구민의 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저는 위원장으로서 구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을 적극 전달하는 구민의 대변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겠습니다.

아울러, 구민 여러분들께서도 제가 위원장으로서 소임을 다할 수 있도록 늘 변함없는 관심과 성원을 보내주시고, 금정구의 발전을 위한 지혜를 모아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5분 자유발언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20.)



하은미 의원

제목 : UN ISDR 국제안전도시로 한발더 가까이

존경하는 홍완표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원정희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주민도시위원회 하은미 의원입니다.

2014년 8월 25일 우리 금정구에는 시간당 최대 130mm, 일일 강수량 251mm라는 기록적인 폭우가 내려, 거리 곳곳에 흙탕물이 흘러넘치고, 온천천이 범람하던 모습을 다들 기억하실 겁니다.

저는 해마다 범람하는 온천천 관리에 관하여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도표는 지난 20년간의 기상청에서 측정한 금정구 자료를 바탕으로, 사진 자료는 2016년 7월 2일에 촬영한 것임을 말씀드립니다.

왼쪽은 금정구 연간 강수량이 2003년 이후 서서히 감소를 하고, 오른쪽은 연중 일일 최대 강수량이 서서히 증가함을 보여줍니다. 일일 최대 강수량이 증가는 집중호우로 인한 강수량의 증가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2014년 8월의 집중호우의 재발 가능성이 늘어난다는 것입니다

이 사진은 지난 7월 2일 오후 4시 42분 시간당 28mm, 총 강수량 40mm 남짓 내렸을때 온천천의 모습입니다.

이것을 바탕으로 지난 20년간 시간당 28mm이상의 비가 내린 것을 7월을 기준으로 나누었습니다. 파란색은 6월까지, 붉은색은 7월 이후를 나타내는 것으로, 대부분은 7월 이후에 발생했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온천천의 수해는 이제부터 시작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할수 있습니다.

이 사진은 금정구청 주변을 촬영한 사진으로 엄청난 양의 우수들이 유입되고 있음을 볼수 있습니다. 근처에는 지난 4월 5일 조성된 화단들이 있는 곳입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장전역과 부산대역 사이 구간으로 운동시설들이 물에 잠겨 있습니다. 아래의 표는 지난 5년간 온천천 체육시설 수리예산과 연간 강수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 양상이 상당히 비슷한 것을 보여줍니다.

마지막으로 부산대역 공영주차장 부근의 모습입니다.

매년 이맘때가 되면 온천천 관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생태하천, 금정, 동래, 연제 3개구에서 보여주는 제각각 관리방식, 조경사업, 체육시설 설치 등등 해마다 나오는 이야기는 큰 차이가 없습니다.

하지만 우리 금정구는 점점 달라져야만 합니다.

2015년 2월 이후 UN ISDR, 재해경감전략사무국 국제안전도시 인증을 위해 여러 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 올해 초 ‘2015년 부산시 재난관리 실태 점검’ 평가에서 최우수기관에 선정도 되었다.

또한 지난 7월 14일에는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재해 경감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산자야 바티야 UN ISDR 동북아사무소장의 강연도 있었습니다.

이 강연에서 안전도시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재해위험 경감에 대한 중요성을 주민들이 자각하게 하는 것, 둘째 재해예방의 투자, 셋째 도시개발 계획에 재해위험경감 요소를 반영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예전과는 달리 되살아난 온천천 주변을 운동 할수 있는 공간으로,산책하다가 나무그늘 아래 쉬어가는 쉼터로 활용하고자 하는 주민들의 마음이야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법을 집행하는 구청에서 법을 어기면서 까지 운동시설을 설치하고,매년 반복되는 온천천

범람으로 인해 운동시설을 수리하고, 나무를 심고, 화단을 가꾸는 등의 일에 예산을 쏟아붓는 것은 바뀌어야만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기존 시설들을 지금 없애자는 것은 아닙니다. 있는 시설을 활용 하는 것이 보다 바람직하겠지만, 수명이 다한 시설을 교체한다든가 추가설치 하는 등의 사업은 이제는 그만해야만 합니다.

또한 주민에게 수해 위험 경감을 위해 관내 우수저류시설, 펌프장 등의 시설 확충을 알리는 것도 필요하지만, 주변에 있는 것들을 보다 안전하게 바꿔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알려 주민 스스로가 위험 경감의 중요성을 깨닫게 해야만 합니다.

이것은 장전동에 있는 축구사진인데 배수가 되지 않고 그대로 고여져 있는 것이고, 다른 지역에 있는 배수구는 도로보다 높은 곳에 위치해서 물이 웬만큼 고여서는 배수구의 역할을 하지도 못합니다. 새로운 우수저류시설 설치 등의 사업도 중요하겠지만 거리에 있는 배수관 등 기존 시설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재난을 대비하는 것은 정부나 어떤 누군가가 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해야 하는 것이다.” 라는 산자야 바티야 소장의 말을 기억하고 우리 금정구가 안전한 도시에 한 발 더 다가갔으면 한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 제244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2016. 7. 20.)



조준영 의원

제목 : 서 · 금사에도 사람이 산다!

반갑습니다. 서금사의 조준영 의원입니다.

“앞으로 3년은 구정 전 분야에 걸쳐 구체적인 성과를 도출하는데 역점을 두고 구정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첫째, 서금사지역의 뉴타운 해제, 존치지역 중심으로 도시재생 사업의 결실을 거둘 수 있도록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원정희 구청장께서 2015년 취임1주년 인터뷰를 한 내용입니다. 향후 구정활동에 있어서 첫 번째 역점사업으로 서금사 도시재생에 집중하겠다는 각오를 밝히고 있습니다.

2015년 7월, 금정구청은 조직 재정비를 통해 도시재생추진단을 신설하고, 서금사 뉴타운 해제지역의 도시재생을 위한 원대한 그림을 그리는 것을 구정의 주요 과제로 삼았습니다. 전담조직을 신설해서 정책을 추진한다는 것은 구청장께서 서금사지역 도시재생에 강한 의지를 가진 것을 의미합니다. 저는 서금사 지역구 의원으로서 구청장님께 이런 점에 대해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아쉬움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2016년 금정구가 도시재생주요사업에 투자한 현황을 살펴보면, 총 사업비가 247억원입니다. 이중 서금사에 투자한 것은 도시재생마스터플랜 및 활성화계획 용역까지 포함해서 9억3천만원에 불과합니다. 도시재생사업비 총 247억원 중 서금사지역에 직접 투자한 금액은 비율 상, 3.75%로 4%가 채 되지 않습니다.

반면, 비서금사지역 도시재생 예산 현황은 크게 대비됩니다. 부곡동 새뜰마을 사업 45억, 장전동 도시활력증진 지역개발사업 60억, 남산동 요산 김정한 선생 문학로 조성사업 9억, 장전동 청년발전소 관련 사업 45억원 등, 비서금사지역에 총 237억 7천만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숫자로 된 정책입니다. 예산은 숫자로 표현되는 단체장의 의지라고 생각합니다.

사실 서금사주민은 구청장의 강한 의지를 체감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구청장께서 가진 의지만큼 당초 도시재생의 1차 대상지인 서금사뉴타운 해제 지역에 대한 예산지원이 현재까지는 타지역에 비해 턱없이 부족한 것은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서금사지역은 뉴타운 지정 당시에는 뉴타운 지역이라서 도시재생 우선순위에서 밀리고, 뉴타운 구역에서 대다수 해제된 현재에는 풀 숙제가 많고 사업이 수월하지 못한 곳이라는 이유 등으로 여전히 우선순위에서 밀려나고 있습니다.

뉴타운으로 지정된 8년 동안 재산권 행사에 상당한 침해를 받았습니다. 어떤 기반시설도, 생활편의시설도 확충하지 못하는 고통도 감수했습니다. 비서금사지역에서 주차장이나 공원을 조성하고 정비할 때, 서금사주민들은 ‘이곳은 금정이 아닌가’ 반문하고 체념했고, 다른 지역에서 보행로 확충과 정비를 할 때 서금사주민은 ‘언제 금정을 떠나야 하나’ 고민했습니다. 뉴타운 지정과 해제과정 속에서 잃어버린 10년에 대한 주민들의 소외감, 상실감은 여전히 현재진행형입니다.

뉴타운이 해제된 지난 1년 반 동안에도 도시재생 마스터플랜과 활성화계획 용역은 여전히 진행 중입니다. 그 사이 도시재생 예산은 서금사가 아니라, 공모선정이 쉽고 사업이 수월한 지역에 편중되고 있습니다.

도시재생추진단은 지난 1년 동안 각종 공모실행에 노고가 많았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도시재생 사업이 대부분 국시비로 이뤄진 공모이기 때문에 선정이 가능하고, 사업이 수월한 곳을 우선 선택하게 되는 한계가 있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늘 사업의 수월성을 기준으로 도시재생을 추진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서금사지역은 공간도 부족하고, 여러 복합적인 갈등을 해결해야 하는 숙제가 많은 곳입니다만, 이런 점이 도시재생의 시급성과 절박성을 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앞으로 도시재생에서 서금사를 우선 고려하지 않으면, 금정에는 균형발전도 미래도 없을 겁니다.

현재의 서금사는, 보도확보가 되지 않아 등교하는 아이들이 차와 뒤섞여 안전이 염려스럽고, 뒤편에서 잠시 해를 피해 이웃과 얘기할 나무그늘조차 부족하고, 해질 녘, 3차로, 5차로의 어르신이 앉아 이야기 하는 곳은 벤치가 아니라 콘크리트 계단이 더

자연스러운 모습입니다.

지금 서금사의 모습을 보면, 과거 금정구 발전의 구심으로서 역할했던 공적은 가려지고, 내 놓기 부끄러운 손톱 밑이 까만 자식처럼 느껴질지는 모르겠지만, 저는 조만간 서금사 지역이 금정구의 미래를 선도해 갈 잠재력이 있는 곳이라고 생각합니다.

뉴타운 해제구역을 포함한 서금사 도시재생에 지금 투자합시다. 지금 투자하면, 서금사를 떠나고 싶은 곳에서 금정구의 미래를 선도하고 사람이 살고 싶은 곳으로 현실화 할 수 있습니다.

서금사에서 아이들과 꿈과 함께 자라고, 세상을 바꾸겠다는 씨앗인 청년들이 실력과 열정을 키우고 있습니다. 이곳에서도 가족의 행복을 꿈꾸는 사람들이 희망으로 터전을 일구고, 어르신들이 노년에 이웃들과 정을 나누는 고향처럼 가꾸며 살고 있습니다. **서금사에도 사람이 삽니다!**

금정구 도시재생의 성공 척도는, 서금사에서 ‘사람이 살고 싶은 금정’이란 말이 자연스레 나오는 것이 아닐까요?

이런 말이 서금사에서 나올 수 있도록, 구청장께서는 다시 한 번 서금사지역을 애정 어린 시선으로 찬찬히 돌아봐 주시고, 이곳 도시재생에 현실적으로 더 힘써주시길 간곡히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